

코로나19와 성 불평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 장은하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희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성 불평등: 국제기구 논의를 중심으로

- UN과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과 여아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팬데믹 상황은 여성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활동, 건강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킬 것이라 분석함(OECD, 2020:3-12; UN, 2020:2; UN Women, 2020:2-7)
 - 경제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여성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 침체 시 실직 및 소득저하 정도가 클 수 있으며, 실질적 금융자산도 많지 않아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음
 - 임신, 출산 등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건강 이슈 때문에 의료자원의 접근과 배분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코로나 초기 사망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나, 재난상황이 지속될 때 일상적 의료의 제한·중단 위험이 있음. 특히, 전세계 보건·돌봄노동자의 약 70%가 여성인 상황에서 보건·돌봄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전염병 감염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측됨(OECD, 2020)
 - 재난 상황에서 무급 돌봄노동은 증가하고, 아동/노인 돌봄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까지 여성의 일로 여겨져 일상적 돌봄에 공적 돌봄까지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개인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하지만, 사회적 격리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다수 여성들을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게 하거나, 서비스센터와의 접촉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코로나19가 여성에게 가져올 손실은 여성의 재생산 역할,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특정 역할(돌봄 등), 여성이 확보한 권력과 자원에서의 격차 모두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건강, 돌봄, 노동 등의 영역에서 여성의 피해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1] 코로나19가 야기할 주요 영역별 성 불평등 이슈

영역	성 불평등 이슈	내용
노동	• 고용이탈, 소득감소	•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실직 및 소득감소 심화
건강	• 의료접근 제한 • 감염위험에의 노출	• 전염병 대응 중심의 의료 지원으로 일상적인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 • 여성직종인 보건·돌봄 종사자의 전염병 감염 위험 증가 및 안전체계 미구축
돌봄	• 돌봄 집중 심화	• 학교, 육아시설, 노인/장애인 돌봄시설 등의 폐쇄로 가정 내 여성에게 돌봄 부담 증가 • 전염병 확산으로 가족 건강 관리 부담 증가
젠더기반폭력	• 젠더기반폭력 증가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폭력 증가 • 특히, 가정 내 격리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거리두기 실패, 피해지원센터 접근 제한 등

* 주: OECD(2020), UN(2020), UN Women(2020) 등의 자료를 참조해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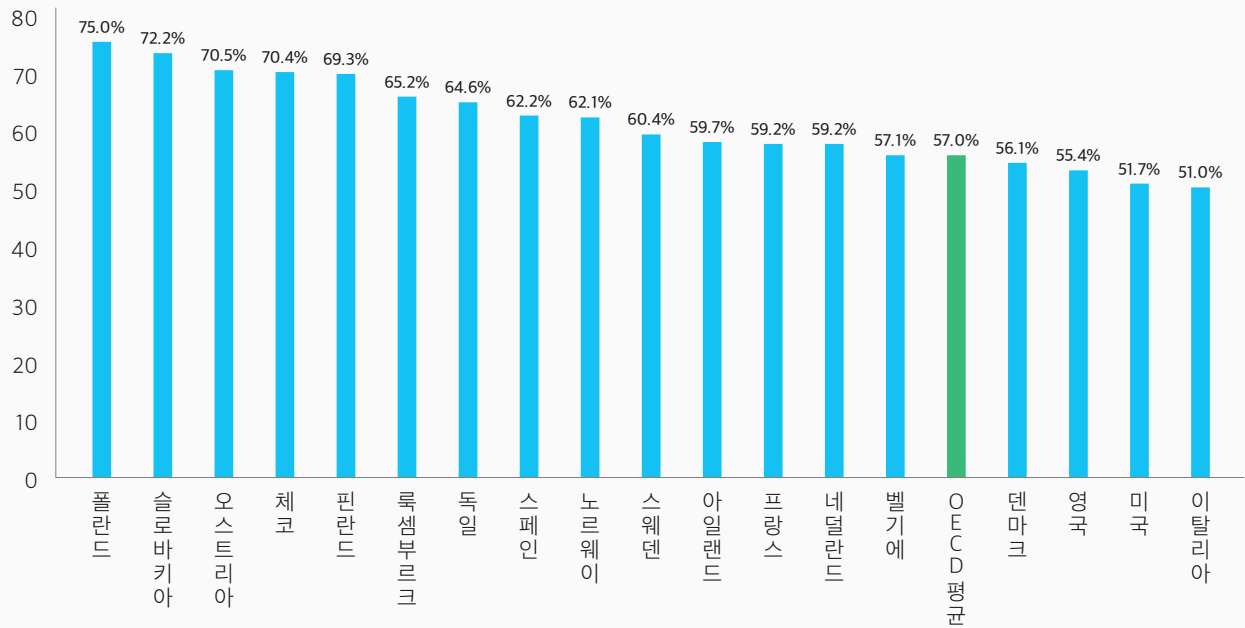
주요 영역별 성 불평등 현황

㉠ 노동: 고용이탈, 소득감소

• 여성 일자리의 고용이탈 심화

- 팬데믹 상황의 경제위기는 지역폐쇄 등 격리조치로 인해 개인들이 필수요소 중심으로 활동을 축소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됨(OECD, 2020:6). 즉, 생존과는 관계가 없는 활동이면서, 대면접촉을 기본으로 하는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관광, 음식/숙박업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 영역은 대표적인 여성집중산업임. [그림 1]과 같이 OECD 18개국 소매업 종사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57.0%이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등은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천5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실직의 부담은 청년, 노인, 여성, 이주자,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서비스업계 종사자 등 특정 그룹에게 편중될 것이라고 분석함(ILO, 2020.3.18.).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37만7000명 감소하였고,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59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헤럴드경제, 2020.4.27.)
- 또 팬데믹 종료 후 여성들이 재고용된다 하더라도 남성들의 임금은 위기 전 수준으로 빨리 회복되지만, 여성의 임금회복률은 높지 않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남녀임금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TheNewYorkTimes, 2020.3.12.)

[그림 1] OECD 주요국의 소매업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주 : ISIC Rev4. category 47(소매업) 중 여성종사자 비율 (2081년 기준)

자료: ILO ILOSTAT,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33/?lang=en&segment=indicator&id=EMP_TEMP_SEX_EC2_NB_A

• 돌봄 부담으로 비자발적 고용이탈

- 돌봄 및 학업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여성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고, 여성들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고용을 포기하기도 함.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적돌봄이 가정으로 이전되면서 부모 중 수입이 적고,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쪽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는 보통 여성일 가능성이 높음

🔍 건강: 의료접근 제한, 보건 돌봄종사자의 감염위험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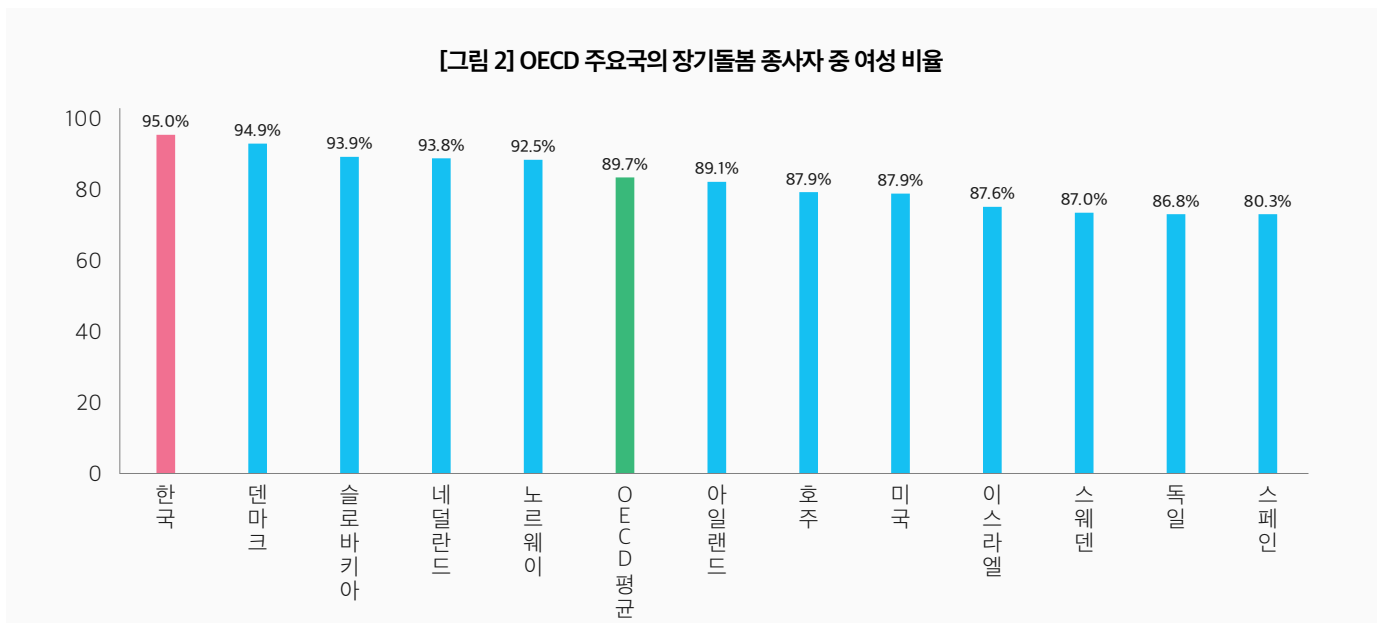
• 성·재생산(Sexual & Reproductive health) 관련 의료접근 및 서비스 제한

-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산전·산후, 정기 검진 등 산모 건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의료자원이 코로나 감염환자 대응에 집중되면서 산모에 대한 의료서비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산모들 역시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시설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나타남(ThePrint, 2020.4.6.)
-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모성사망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에볼라가 창궐하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에서 모성사망률이 증가하였는데, 산모가 사회적 격리를 실천하느라 의료시설에 오지 못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있었기 때문임(ThePrint, 2020.4.6.)

-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국가 간 물류이동 제한은 콘돔과 피임약 등의 생산, 유통,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피임약 원료의 주 생산자이자 공급자인 중국이 봉쇄 정책을 시작한 이후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약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면서, 국제 운송과 배송·통관이 지연되는 상황임. 수입산 피임약의 경우 수입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재승인절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Devex, 2020.3.11.)

• 보건·돌봄분야 종사자의 감염 노출 심화

- 보건·돌봄분야 종사자의 경우, 이들의 업무 특성(감염환자 및 노약자에 대한 밀착간호 제공 등)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고,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들 분야 종사자 중 대다수는 여성임. 전 세계적으로 의료업계의 종사자 중 70%가 여성이고(WHO, GHWN and WGH 2019: vi),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후베이성에서 활동했던 의료진 역시 90%는 여성이었음(Wehan et al., 2020:846-848). 돌봄 분야 종사자 역시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데, 015년 기준 OECD 주요국의 장기돌봄 종사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약 90%를 차지하고, 한국은 이보다 높아 95%로 나타남[그림 2 참고]



주 : 2015년 기준 (덴마크는 2014년)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7, https://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검색일:2020.4.29.)

-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의료를 지원하는 의료진의 경우, 초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감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대한간호협회, 2020.4.7.) 실제 필리핀의 경우, 4월 29일 기준 전체 확진자 8천212명 중 1천300명 이상이 의료진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493명 순이었음(연합뉴스, 2020.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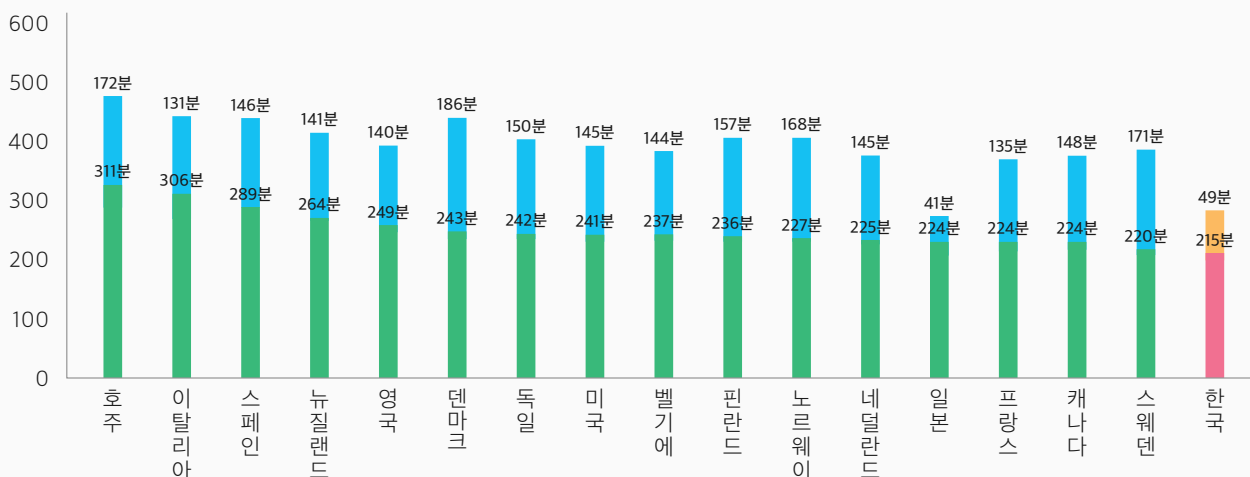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처럼 보호장구(PPE)가 부족한 경우에는 여성 의료인력의 감염률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대나 탬폰 등 재생산 관련 용품의 수급도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후베이성에서 일하는 중국 간호사들의 경우, 도시가 봉쇄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숙식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생리대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됨(TheNewYorkTimes, 2020.2.26)
- 여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 역시 여성의 감염 위험성을 높임. 통상 전염병에 감염된 병자를 돌보는 임무도 여성이 수행하기 때문인데, 2014년~2016년 에볼라 사태, 2002년~2003년 사스 사태, 그리고 2018년도 인도 Kerala지역에서 발발한 Nipah 바이러스 사태 때에도 돌봄임무를 수행하던 여성과 여아들이 다수 감염된 바 있음(TheProject Syndicate, 2020.3.27). 에볼라 발생 당시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이 전통적으로 돌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준비하는 장례까지 맡아서 수행해왔기 때문에 노동의 가중은 물론, 여성의 에볼라 감염위험이 증가하기도 함(TheNewYorkTimes, 2020.3.12.)

㉠ 돌봄: 여성의 돌봄 부담 심화

• 공적돌봄의 가정 내 여성으로의 이전

- 재난 상황의 사회적 격리와 휴교 조치는 아동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가정에 머물게 하고, 가정에서 돌봄, 학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야기함.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무급노동(돌봄 및 가사노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데[그림 3 참조]¹⁾,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아동 및 노인, 병자에 대한 돌봄은 온전히 가정 내 여성의 몫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큼(OECD, 2020:5)
- 재난 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일은 직접적인 돌봄노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및 가족 건강관리, 자녀 학업 관리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도시봉쇄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필품 공급의 문제도 여성에게 전가될 수 있음(TheAtlantic, 2020.3.19.)

[그림 3] OECD 주요국의 하루 중 무급노동 시간



주 : 2018년 기준

자료: OECD Time Use Database, <https://stats.oecd.org/> (검색일:2020.4.29.)

1) 특히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급노동에서의 성별격차가 2.5시간을 상회함

- 돌봄취약가구의 돌봄 부담 심화

- 특히, 공적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때,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가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직장에서도 이탈하거나, 직장을 유지하더라도 가정 내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무엇보다, 여성 의료인력의 경우, 가정 내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한국 역시 코로나 의료지원현장에 투입된 여성의료진이 본인의 자녀돌봄은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함²⁾

🔗 젠더기반폭력: 폭력 증가, 지원서비스에의 접근 제한

- 여성 대상 폭력의 증가

- 위기 상황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습 등을 포함하는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 있음. 코로나19와 같이 지역봉쇄와 사회적 격리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족 구성원이 제한된 공간 내에 머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음주,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폭력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영국 NGO인 Women's Aid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가해자들의 강압적이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심해질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쉼터와 상담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함(TheAtlantic, 2020.3.19.)
- 특히, 가정에서 폭력의 가해와 피해관계가 이미 형성된 경우, 자가격리는 피해자가 직장으로 출근하거나, 이웃 방문 등을 통해 폭력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게 함으로써 더 극한 폭력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임(Time, 2020.3.18.)
- 다음의 <표 2>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젠더폭력 증가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 후베이성, 프랑스 파리,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보여줌

[표 2] 팬데믹 상황에서의 젠더기반폭력 현황

국가/지역	젠더기반폭력 현황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荊州)시	• 2020년 2월 가정폭력이 전년 대비 3배 증가 ³⁾
프랑스	• 파리의 경우, 도시봉쇄(3월 17일) 이후 가정 폭력률이 36% 증가. 프랑스 전체로는 32% 증가 ⁴⁾
영국 & 북아일랜드	• 이동제한령 시행 이후 가정폭력이 약 20% 증가 ⁵⁾
유럽연합	• 도시봉쇄 이후 가정폭력률이 3배 증가 ⁶⁾
기타 ⁷⁾	• 팬데믹 이후 레바논과 말레이시아에서는 헬프라인(helpline) 전화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2) 김현지. 내과 전문의. (2020.4.8). 전화인터뷰 당시 대구 동산병원 자원봉사 중

- 피해지원 시설, 서비스에의 접근 제한

- 피해자 지원센터, 병원, 관련 시설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문을 닫거나 업무가 과중되어 피해자들이 의로서비스와 상담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짐. 제3차 의료기관에 설치된 쉼터나 원스톱 위기센터 등은 코로나 환자 대응으로 인해 그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쉼터 등이 코로나 대응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경찰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봉쇄를 관리하느라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상황도 발생함(UN, 2020.4.6.)
- 아울러 자가격리로 가정 내에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상황은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만들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역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서비스기관을 찾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함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의 제언

- 코로나19로 건강, 돌봄, 노동 등 주요 영역의 성 불평등 이슈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전세계는 코로나19가 지속·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에 직면함
- 이에 국제기구는 코로나19가 남긴 성 불평등을 해소·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여성과 여아 중심의 피해 복구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성인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함

① 성별분리데이터 구축

-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성별로 분리된 데이터를 적시에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성별분리데이터는 팬데믹이 여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이 남성과 여성에게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취약성이 어떤 측면에서 더 높은지, 난민이나 이주여성은 어떠한 상황인지, 사회적 격리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이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되는지 등을 보여 줄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분류된 수치들은 증거기반 대응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Data2X, 2020.3.23)

3) Axios (2020.3.7.). China's Domestic Violence Epidemic. <https://www.axios.com/china-domestic-violence-coronavirus-quarantine-7b00c3ba-35bc-4d16-afdd-b76ecfb28882.html> (검색일: 2020.4.3.)

4) Time (2020.3.31.). French Government to House Domestic Abuse Victims in Hotels as Cases Rise During Coronavirus Lockdown. <https://time.com/5812990/france-domestic-violence-hotel-coronavirus/> (검색일: 2020.4.1.)

5) BBC (2020.3.30.). Coronavirus: 'Domestic abuse pandemic likely due to shutdown'. <https://www.bbc.com/news/uk-wales-52076789> (검색일: 2020.4.3.)

6) European Parliament (2020. 4. 7.). COVID-19 : Stopping the Rise in Domestic Violence During Lockdown.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00406IPR76610/covid-19-stopping-the-rise-in-domestic-violence-during-lockdown> (검색일: 2020.4.9.)

7) UN (2020.4.6.). UN Chief Calls for Domestic Violence 'Ceasefire' Amid 'Horrible Global Surge'. <https://news.un.org/en/story/2020/04/1061052> (검색일: 2020.4.9.)

② 여성의 참여 확대

-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은 여성 경험의 특수성과 정책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여성의 손실을 심화시키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남녀 간 권력 격차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Data2X, 2020.3.23)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건 의료분야 최상위 직책의 72%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음(Global health 50/50, 2019). 한국 역시 2020년 4월 9일 기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29명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함

③ 교차성 고려

- 모든 대응에 있어서 성별 이외에도, 연령, 장애, 인종, 거주지역, 이민자, 사회 내 계층, 거주지 및 고용 상황, 그리고 정치적, 환경적 압박 요인 등의 다양한 교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성별은 이러한 포괄적인 불평등 내에서 교차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이러한 교차성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불평등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과 권력 구조를 밝혀주기 때문이며,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들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임(The University of Melbourne, 2020). 즉, 교차성 고려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은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현지 내과전문의 (2020.4.8.), 전화인터뷰.

대한간호협회(2020.4.7.). “환자 돌보던 간호사들 잇단 코로나 확진으로 의료계 비상”, 보도자료,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press&member_id=admin&exec=&no=334&category_no=&step=0&tag=&sgroup=325&float=&position=2&mode=&find=&search= (검색일: 2020.5.1.)

연합뉴스(2020.4.29.). “필리핀 코로나19 누적확진 8천명 초과…의료진 감염 1천명 넘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02151084?input=1179m> (검색일: 2020.5.1.)

헤럴드경제(2020.4.27.). “[코로나궤 실업대란] ‘위기의 취약계층’ 청년·여성일용직 직격탄…특수고용직은 대책서 소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27000201> (검색일: 2020.5.2.)

ABC News(2020, April 4). French Women Use Code Words at Pharmacies to Escape Domestic Violence During Coronavirus Lockdown.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french-women-code-words-pharmacies-escape-domestic-violence/story?id=69954238> (검색일: 2020.4.6.)

Axios(2020, March 7). “WChina’s Domestic Violence Epidemic.

<https://www.axios.com/china-domestic-violence-coronavirus-quarantine-7b00c3ba-35bc-4d16-afdd-b76ecfb28882.html> (검색일: 2020.4.3.)

BBC(2020, March 8). Coronavirus: Five Ways Virus Upheaval is Hitting Women in Asia.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705199> (검색일: 2020.4.1.)

Data2X(2020, March 23). An Intersectional Approach to a Pandemic? Gender Data, Disaggregation, and COVID-19.

<https://data2x.org/an-intersectional-approach-to-a-pandemic-gender-data-diasaggregation-and-covid-19> (검색일: 2020.4.1.)

Devex(2020, March 11). Opinion: How Will Covid-19 Affect Global Access to Contraceptives-and What Can We Do About It?,

<https://www.devex.com/news/opinion-how-will-covid-19-affect-global-access-to-contraceptives-and-what-can-we-do-about-it-96745> (검색일: 2020.4.1.)

European Parliament(2020, April 7). COVID-19: Stopping the Rise in Domestic Violence During Lockdown.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00406IPR76610/covid-19-stopping-the-rise-in-domestic-violence-during-lockdown> (검색일: 2020.4.9.)

Global Health 5050(2020). Equality Works: The Global Health 50/50 2019 Report.
<https://globalhealth5050.org/wp-content/uploads/2019/03/Equality-Works.pdf> (검색일: 2020.4.9.)

ILO(2020. March 18). Almost 25 Million Jobs Could be Lost Worldwide As a Result of COVID-19, Says ILO.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38742/lang-en/index.htm (검색일: 2020.4.1.)

ILO(2020. April. 7). Women Health Workers: Working Relentlessly in Hospitals and at Home.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41060/lang-en/index.htm?shared_from=shr-tls (검색일: 2020.4.9.)

OECD(2020).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D-19 Crisis, OECD.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27_127000-awfnqj80me&title=Women-at-the-core-of-the-fight-against-COVID-19-crisis (검색일: 2020.4.23.)

The Atlantic(2020, March 19). The Coronavirus Is a Disaster for Feminism.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20/03/feminism-womens-rights-coronavirus-covid19608302/?utm_source=facebook&utm_campaign=the-atlantic-fb-test-1332-2-&utm_content=edit-promo&utm_medium=social (검색일: 2020.4.3.)

Time(2020, March 18). As Cities Around the World Go on Lockdow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Look for a Way Out.
<https://time.com/5803887/coronavirus-domestic-violence-victims/> (검색일: 2020.4.1.)

Time(2020, March 31). French Government to House Domestic Abuse Victims in Hotels as Cases Rise During Coronavirus Lockdown.
<https://time.com/5812990/france-domestic-violence-hotel-coronavirus/> (검색일: 2020.4.1.)

The Local(2020). Why is Denmark's Coronavirus Lockdown So Much Tougher than Sweden's.
<https://www.thelocal.dk/20200320.why-is-denmarks-lockdown-so-much-more-severe-than-swedens> (검색일: 2020.4.10.)

The New York Times(2020, February 26). Shaved Heads, Adult Diapers: Life as a Nurse in the Coronavirus Outbreak.
<https://www.nytimes.com/2020/02/26/business/coronavirus-china-nurse-womenstruation.html>
 (검색일: 2020.4.1.)

The New York Times(2020, March 12). Why Women May Face a Greater Risk of Catching Coronavirus.
<https://www.nytimes.com/2020/03/12/us/women-coronavirus-greater-risk.html> (검색일: 2020.4.1.)

The New York Times(2020, April 2). What Pregnant Women Should Know About Coronavirus.
<https://www.nytimes.com/article/pregnancy-coronavirus.html> (검색일: 2020.4.3.)

The Print(2020, April 6). Covid-19 Will Worsen Women's Health, Income Inequality.
https://theprint.in/health/covid-19-will-worsen-womens-health-income-inequality/394877/?fbclid=IwAR1HkghOYKEy-WX1bs2BVxmX0te_i4oAQggBg1S84xPTAZOjC3zwc9nw6Ns (검색일: 2020.4.9.).

The Project Syndicate(2020, March 27). A Gender Lens for COVID 19.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covid19-response-requires-a-gender-lens-by-susan-pappand-marcy-hersh-2020-03> (검색일: 2020.4.1.)

The University of Melbourne(2020, March 31). Beyond Sex and Gender Analysis: an Intersectional View of The COVID-19 Pandemic Outbreak and Response.
https://mspgh.unimelb.edu.au/_data/assets/pdf_file/0011/3334889/Policy-brief_v3.pdf (검색일: 2020.4.10.)

UN(2020, April 6). UN Chief Calls for Domestic Violence 'Ceasefire' Amid 'Horrorifying Global Surge'.
<https://news.un.org/en/story/202020/04/1061052> (검색일: 2020.4.9.).

UN(2020, April 9).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United Nation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women> (검색일: 2020.4.23.)

UN Women(2020, March). The Covid-19 Outbreak and Gender: Key Advocacy Points from Asia and the Pacific.
<https://www2.unwomen.org/-/media/field%20office%20eseasia/doc/publications/2020/03/ap-giha-wg-advocacy.pdf?la=en&vs=2145> (검색일: 2020.4.1.)

UN Women(2020, March 27.). Gender-Responsiv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Emergency Response to Recovery & Resilience.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news%20and%20events/in%20focus/covid-19/gender-responsive-prevention-management-covid19.pdf?la=en&vs=1519> (검색일: 2020.4.23.)

Wenham, C., Smith J., Morgan., & Gender and COVID-19 Working Group.(2020). COVID-19: The Gendered Impacts of the Outbreak. The Lancet, 395(10227), 846-848.

WHO, GHWN, & WGH.(2019). Delivered By Women, Led By Men: A Gender and Equity Analysis of the Global Health and Social Workforce.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11322/9789241515467-eng.pdf?ua=1> (검색일: 2020.4.9.).